제2부 신앙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2부 · 소극적 표지 12: 타인에 의한 구원의 확신

『신앙감정론』 제2부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중 열두 번째 소극적 표지, 인쇄 271~282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먼저 원리를 세웁니다. 참된 성도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볼 수 없고 겉모습만 봅니다. 그런데 위선자는 감정, 말, 확신, 열심까지 성도와 거의 똑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군가의 간증에 감동하고 마음이 끌린다고 해도 그것은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해 '보이는' 것에도 쉽게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규칙이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봄꽃, 곡식과 가라지, 십볼렛, 나병 검사가 모두 이 원리를 보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에드워즈는 '내 안에서 그 사람에게로 사랑이 특별하게 흘러가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하다'는 당시 주장을 반박합니다. 마음을 판단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장을 맺습니다.

🪪 표지 카드

표지 12(소극):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과 그 체험 이야기가 참된 성도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고 사랑을 얻는다 해서, 그 감정의 본질을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성도의 감동은 상대의 마음속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반응한 것입니다. 위선자도 성도의 말투와 체험 순서, 확신에 찬 태도까지 그대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인정은 증거가 아니라 '그럴 법한 정황'에 머뭅니다. 사람의 마음을 확정하는 판단은 하나님만 내리십니다.

📜 절별 정리

📜 1. 성도에게는 남의 마음을 꿰뚫는 눈이 없다

에드워즈는 출발점을 분명히 합니다. 참된 성도는 신앙을 자기 안에서 직접 겪었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체험으로' 압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속은 느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표현과 겉모습뿐입니다. 성경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불확실하고 속기 쉽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중심을 보는 일은 하나님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체험이 있으니 남의 진짜 여부를 알아본다”는 생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내 체험은 알 수 있어도 남의 마음은 모른다
2. 사람이 보는 것은 겉모습과 말뿐이다
3. 외모로 하는 판단은 속기 쉽다
4.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 **사무엘상 16:7**
> 사람은 외모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대원칙
>
>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 **이사야 11:3**
> 메시아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참된 판단은 겉모습을 넘어선다
>
>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 2. 위선자와 성도는 겉으로 이만큼 닮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럴 법한 신앙의 모습을 많이 볼 때 그를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아주 밝고 아름다우면 가장 수준 높은 성도도 속을 수 있습니다. 탁월한 성도로 인정받던 사람이 신앙을 떠나는 일은 교회에서 흔합니다. 에드워즈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떠올려 보면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전혀 없는 사람도 다음 모습을 모두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닮은 감정, 형제 사랑, 죄에 대한 슬픔, 겸손해 보이는 모습, 큰 각성 뒤에 오는 기쁨, 눈물, 유창한 신앙 대화, 마음에 박히는 성경 약속, 열정적인 찬양, 집회와 기도에 대한 열심, 독수리 날개에 오른 듯한 확신까지 그렇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일반적 사역'과 사탄의 속임, 사람의 기만적인 마음이 섞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일반적 사역이란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으면서 깨우치고 감동시키는 성령의 활동을 말합니다. 또 부드러운 기질, 교리 지식, 성도들의 말투를 익힌 습관, 듣는 사람에게 맞추는 화술, 좋은 교육도 함께 작용합니다. 그러니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분별하는 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1. 그럴 법한 신자는 형제로 사랑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가장 탁월한 성도도 속을 수 있다
3. 은혜 없는 이도 눈물·확신·열심을 보인다
4. 기질·교육·화술이 '은혜'처럼 보이게 한다
5.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은 하나님의 특권이다

> **사무엘상 16:7**
>
> (1절에 이어) 마음을 감찰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영역이다
>
>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 **이사야 11:3**
>
>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참된 재판관의 표지다
>
>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 3. 감동받는 순간은 판단의 순간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체험담이 내 체험과 맞아떨어지고, 내 마음이 감동하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바로 그때가 그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때라고 말입니다. 에드워즈는 그것이 생각만큼 확실하지 않다고 답합니다. 이유는 오히려 성도의 좋은 점에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크게 기뻐하고, 멸망하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거룩해 '보이는' 이야기에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겉모습이 실제와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상대가 성도들의 언어를 쓰고, 듣는 이의 체험 순서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확신 있게 당당히 말하고, 듣는 사람에게 깊은 애정을 보이면 감동은 더 커집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도 아히도벨과의 교제를 달콤하게 누렸지만, 아히도벨이 배신하자 크게 놀라고 실망했습니다.

1. 성도는 거룩함을 사랑해 거룩해 보임에 끌린다
2. 같은 언어·같은 순서는 흉내 낼 수 있다
3. 확신 있는 태도와 애정은 판단을 흐린다
4. 다윗도 아히도벨에게 속았다

> **시편 55:12~14**
> 하나님의 집에 함께 다니며 달콤하게 교제하던 친구의 배신. 경건한 사람도 속는다는 실례
>
> 12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14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 **갈라디아서 4:15**
> (본문에 장절 없이 암시) 바울을 향해 큰 애정을 보이던 갈라디아 교인들. 애정 표현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연다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참된 성도는 거룩함을 크게 즐거워한다."

📜 4. 봄꽃은 색이 아니라 익은 열매로 판단한다

성령이 부어지는 부흥의 때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봄에 핀 꽃과 같습니다. 꽃은 모두 아름답고 향기로워 다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꽃이 곧 시들어 나무 밑에서 썩습니다. 그 꽃들도 잠시는 다른 꽃만큼 화려하고 향기롭습니다. 속에 힘이 있어 여름 햇볕에 익을 꽃과 말라 버릴 꽃을 우리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회심자의 이야기는 아름답고 향기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맡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열매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1. 부흥기 신앙고백자는 봄꽃과 같다
2. 시들 꽃도 잠시는 똑같이 향기롭다
3. 꽃 단계에서는 우리 눈으로 구별 못 한다
4. 판단은 나중에 맺히는 익은 열매로 한다

사무엘상 16:7

(원리 재적용) 꽃의 색과 향은 '외모'에 해당하며 중심을 보여 주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꽃의 아름다운 색깔이나 향기가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익은 열매로 판단해야 한다."

📜 5. 그리스도가 주신 규칙: 나무는 열매로 안다

에드워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지혜로워 보이는 자기 방법을 만드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남의 신실함을 판단하는 데 '나무를 열매로 판단하라'는 그리스도의 지침보다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더 날카롭고 확실해 보이는 판별법을 고안했고, 그리스도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를 높인 이 교만은 통탄할 만큼 해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많은 성도가 이 점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그중 일부는 “채찍과 전갈로” 징계를 받고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어난 일들을 보면, 자기 분별력을 과신하며 남의 상태를 순간적으로 단정하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사실 참된 믿음을 알지 못한 위선자였습니다.

1. 판단 기준은 그리스도가 이미 주셨다
2. 새 판별법 고안은 사람 지혜를 높이는 교만
3. 그 결과는 교회에 큰 해를 끼쳤다
4. 남을 성급히 단정하던 이들 중 위선자가 많았다

> **마태복음 7:16**
> (본문에 장절 없이 '그리스도의 원리'로 언급)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 장 전체의 대안 기준
>
>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 6. 곡식과 가라지, 십볼렛, 나병 검사

예수님의 비유에서 가라지는 곡식이 싹을 내고 결실할 때에야 드러납니다. 에드워즈가 인용한 플라벨에 따르면, 제롬은 곡식과 가라지가 너무 닮아서 이삭이 나기 전에는 구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플라벨은 여기에 덧붙입니다. 사람이 구원하는 은혜와 그렇지 않은 은혜를 구별하는 일은 곡식과 가라지를 육안으로 구별하는 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위선자는 성도가 겪는 모든 은혜의 일을 흉내

곡식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바르게 발음한 '십볼렛'은 알곡이 찬 이삭이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어설픈 발음은 빈 이삭입니다. 이것은 열매 있는 그리스도의 친구들과 알맹이 없는 위선자의 외적 신앙을 예표합니다. 죽음을 지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도 열매로 판단하십니다. 또 율법의 나병 검사에서 제사장은 환부를 꼼꼼히 보고도 바로 판정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7일씩 격리한 뒤 환부에서 자라난 털, 곧 병이 맺은 '열매'를 보고 판정했습니다.

1. 가라지는 결실할 때에야 드러난다
2. 은혜 구별은 가라지 구별보다 더 어렵다
3. 십볼렛: 꽉 찬 이삭과 빈 이삭
4. 나병도 시간을 두고 '열매'로 판정했다
5. 기다림과 열매가 성경의 일관된 방식이다

> **마태복음 13:26**
>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드러난다. 시간과 열매가 진위를 가른다
>
>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 **사사기 12:6**
> (본문에 장절 없이 암시) 십볼렛 시험. 꽉 찬 이삭 대 빈 이삭, 곧 열매 있는 신앙 대 외적 신앙
>
>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 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사만 이천 명이었더라

> **레위기 13장**
> (본문에 장절 없이 암시) 7일 격리 뒤 털을 보고 나병을 판정. 즉석 판정 대신 시간과 열매
>
> [1]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3]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 부정하다 할 것이요 [4]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5]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6]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

📜 7. '내 사랑이 흘러가니 그는 확실한 성도'라는 주장

최근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로 내 사랑이 특이하게 흘러나가면,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직접 계시처럼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성령이 주셨고, 진리의 성령은 속이지 않으시니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논리입니다. 에드워즈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지는 사람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친밀하게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이 의무를 다하도록 사랑을 더해 주시는 것은 상대가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거짓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지키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비유를 듭니다. 멀리서 집에 불이 났지만 가족이 모두 무사하다는 믿을 만한 소식을 들었다면, 그 소식이 나중에 틀린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그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14장이 보여 주듯, 잘못된 판단조차 참된 감사와 은혜가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의 거룩한 사랑은 상대의 상태를 보증하지 못합니다.

1. '흐르는 사랑=계시'는 근거 없는 주장
2. 그럴 법한 신자를 사랑하는 것은 의무다
3. 성령은 의무를 돕되 상대를 보증하지 않는다
4. 화재 소식 비유: 오보에도 감사는 옳다
5. 오류도 은혜가 역사하는 기회가 된다

잘못된 규정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주께 감사한다. 오류 속에서도 참된 은혜가 일어난다

>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 8. 성경은 마음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

에드워즈는 사랑이 흘러나오는 느낌으로 남의 상태를 확정하는 생각이 이성에도 성경에도 근거가 없고, 오히려 성경에 정면으로 반대된다고 결론짓습니다. 성경은 그런 판단법을 한 마디도 말하지 않고, 주로 열매로 판단하라고 합니다. 또 남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흰 돌의 새 이름은 받는 사람만 압니다. 이면적 유대인의 칭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바울은 주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고, 자기 자신조차 최종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책망한 사람들은 자기 분별력을 자신하며 스스로 맹인의 인도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여기고 남을 판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예는 베드로입니다. 실루아노는 바울과 함께 사역한 탁월한 전도자였는데도 베드로는 그를 “신실한 형제로 아는” 정도로만 말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남의 믿음을 확실히 안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1. 성경은 열매로 판단하라고 가르친다
2. 새 이름은 받는 자만 안다
3. 마음의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4. 바울은 자기 자신도 최종 판단하지 않았다
5. 베드로도 실루아노를 '아는' 정도로 말했다

> **요한계시록 2:17**
> 흰 돌의 새 이름은 받는 사람밖에 모른다. 내면의 상태는 남에게 감춰져 있다
>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로마서 2:29

이면적 유대인의 칭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최종 판단은 하나님의 것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고린도전서 4:5

주께서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말라. 마음의 뜻은 그분이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3~4

바울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다

3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로마서 2:1, 17~20

자기 분별력을 자신하며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책망

로마서 2: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17-20 17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9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베드로전서 5:12

베드로가 실루아노를 “신실한 형제로 아는” 정도로만 말함. 판단의 절제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고린도후서 1:19, 데살로니가전서 1:1, 데살로니가후서 1:1

실루아노가 바울의 동역자로 이름난 일꾼이었다는 근거

고린도후서 1:19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 오해와 반론

📖 용어

신앙감정(affection)

하나님과 신앙의 일을 향해 마음이 강하게 끌리거나 싫어하는 움직임이다.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이 주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소극적 표지

있다고 해서 참 은혜를 증명하지도, 없다고 해서 부정하지도 못하는 판단 근거다.

원서자

이 책에서는 남을 속이려는 사람이라기보다, 스스로도 은혜가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은 신앙고백자를 말한다.

신앙고백자
겉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참된 성도와 위선자가 모두 포함된다.

성령의 일반적 사역
사람을 깨우치고 감동시키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여 구원하지는 않는 성령의 활동이다.

직접 계시
성경과 열매를 거치지 않고 하늘에서 바로 주어진다고 여기는 지식이다. 에드워즈가 경계한 열광주의의 특징이다.

열매
시간이 지나며 삶과 행실로 드러나는 신앙의 결과다. 그리스도가 주신 판단 기준이다.

십볼렛
히브리어로 '이삭'이라는 뜻이다. 사사 입다 때 이 말의 발음으로 아군과 적군을 갈랐다.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성도도 남의 마음은 볼 수 없고, 위선자는 겉으로 성도와 거의 똑같을 수 있다.
- 그래서 성도들의 감동과 인정은 신앙의 진위를 가리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 그럴 법한 신자를 형제로 사랑하는 것은 의무다. 그러나 마음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10편 · 나는 확신하고 남들도 인정하는데 · 표지 11·12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